

# 9월에도 열대야로 '제주, 잠 못 이루는 밤' 될라

### 지난해 75일 역대급 기록 올해도 월별 발생일수 유사 6~8월 서귀포 59일·제주 56일... 중순까지 더위 예상

올해도 열대야 현상이 심상찮다. 지난 7~8월에 며칠을 빼놓고는 모두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졌다. 특히 지난해 최장기록을 세웠던 열대야의 패턴이 올해도 유사하게 이어지면서 9월에도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대야 발생일수는 75일, 지속일은 47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열대야는 9월 20일 종료되며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까지 세웠다.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 59일, 제주 56일 등이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이날도 열대야를 보였고, 지역별 최저기온은 서귀포 28.1℃, 제주 27.1℃ 등이다.

월별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 6월 2일(0일), 지난해 동기 이하 생략)·7월 27일(20일)·8월 30일(30일) ▷제주는 6월 2일(1일)·7월 25일(25일)·8월 29일(30일)이다.

그동안 없었던 6월 열대야가 2022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올해 첫 열대야는 제주에서 지난 6월 20

일, 서귀포에선 이보다 늦은 6월 29일에 나타났다. 이후 6월 30일에 도 전역에서 열대야 현상을 보였고, 7월 10일까지 제주는 11일간, 서귀포는 12일간 열대야가 이어졌다.

지난 7월 11일부터 비 날씨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열대야는 며칠 후인 서귀포 15일, 제주는 16일부터 다시 나타났다. 이후 8월 10일 어간에도 잠시 멈췄던 열대야는 서귀포 11일, 제주는 12일부터 연일 폭염특보와 함께 20여 일간 그 열기를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와 유사한 패턴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데, 9월에도 밤낮 무더위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도 제주 29.2℃, 서귀포

28.2℃까지 올라 도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대야 일수는 제주 19일, 서귀포 18일로 최근 10년새 역대 최대치다. 평년 0~3일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현재 열대야 발생 패턴으로 보면 지난해와 유사해 9월에도 당분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의 중기예보상 오는 9월 10일까지 아침 기온은 24~27℃, 낮 기온은 29~32℃로 평년(최저기온 22~23℃, 최고기온 27~29℃)보다 높겠다. 최고체감온도는 33℃ 안팎으로 올라 무더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3년 만의 개기월식... 8일 '붉은 달' 뜬다

## 제주별빛누리공원, 천체관측 프로그램 진행

제주별빛누리공원은 오는 8일 새벽에 발생하는 개기월식 관측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기월식은 2022년 11월 8일 이후 약 3년 만에 나타나는 것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개기월식에 대해 배우는 체험교육과 개기월식을 볼 수 있는 천체관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체험교육은 월식의 원리를 배우고 굴절망원경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오는 6일과 7일 오후 7시 별빛누리공원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초등학교생 1명과 보호자 1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참가 신청은 2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후 7시

까지 별빛누리공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회당 10팀, 총 20팀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팀당 1만원이다.

천체관측 프로그램은 개기월식이 진행되는 8일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태양계 광장에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달의 월식뿐 아니라 토성, 목성, 금성, 겨울 별자리까지 함께 관측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다만,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문의 728-8900.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크루즈 페스타'로 서귀포 매력 알렸다

## 30일 첫 회 시작으로 11월까지 10회 선보일 계획

서귀포시는 강정항에 대형 크루즈 선이 기항한 지난달 30일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 첫선을 보였다. 크루즈 페스타는 오는 11월까지 총 10차례 이어진다.

이날 강정항에 기항한 영국발 크루즈 빌라 비 오디세이는 올해 기항 크루즈 가운데 유일하게 1박 이상 체류하는 크루즈다.

강정항 행사장 곳곳에서는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

플리마켓과 전통공예 체험 부스, 한류 포토존이 운영돼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또 저녁 시간대에는 보라별, 라라랜드제제, 강정해녀회, 제주전통가온예술단이 무대에 올라 K-팝 커버곡과 제주 민속공연을 선보였다. 최근 한류 열풍을 이끄는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커버곡이 공연될 때는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문미숙기자

# 202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개정판 발간

## 제주도교육청, 9월 중 학교·교육지원청 배포

제주지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규정서가 1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2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중등) 개정판"을 발간·보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013년 초판 발간 이후 12년 만의 개정본으로 그간의 제도 변화와 법령·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임용, 휴직 및 복직, 복무, 승진 및 평정 등 항목별 인사업무 처리 절차와 관련 법령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판은 9월 중 각급 학교

와 교육지원청에 배포될 예정이다. 관련 서식은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현기자



빛을 머금은 연잎 뜨거운 대지를 식혀주는 소나기가 내린 31일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의 한 연못에서 빛물을 머금은 연잎이 푸르른 자태를 뽐내고 있다.

# 제주 검정고시 382명 합격

## 최고령 74세·최연소 11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9일 2025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12일 치러진 이번 검정고시에는 총 447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382명이 합격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초졸은 32명 중 29명(90.6%), 중졸은 80명 중 69명(86.3%), 고졸은 335명 중 284명(84.8%)이 합격했다. 합격자 중 최고령은 초졸 72세(여), 중졸 74세(남), 고졸 73세(남)이다. 최연소는 초졸 11세(여), 중졸 11세(여), 고졸 13세(남)이다.

합격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합격증서는 내달 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도교육청 교육행정과 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가족이 대신 수령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성취가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 제주도·지구와사람, 생태가치 확산 '맞손'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 참석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법인 '지구와사람'이 생태가치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도청 삼다홀에서 (재)지구와사람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국제생태포럼을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재)지구와사람 송기원 이사장,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세계적 인지도를 갖춘 국제생태포럼 공동 개최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한 국

제교류를 위한 협력 ▷자연과 생태 관련 자문 및 연구 협력 등에 대해 협력한다.

또 제주도는 내년부터 세계 각국의 학자와 생태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생태 협력 플랫폼을 제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의 대표적 생태자산인 남방큰돌고래와 곳자알, 오름 등을 법적 주제로 인정해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